

## 아름다운 동행,

## -제이씨엔터테인먼트의 사회 공헌 활동-

글 김지영(제이씨엔터테인먼트 홍보팀)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다. '제이씨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양신, www.jceworld.com)는 2005년 휠체어 농구 대회를 후원한 이래 2006년 길거리 모금 활동과 장애 학교 봉사 활동 등 매년 장애인의 날을 즈음해 장애 아동들과 함께 놀이 나눔과 후원금을 지원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07년 장애인의 날, JCE인들과 성남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소속 친구들은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JCE는 자율적으로 직원들의 참여를 받아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정신지체와 발달장애 아동들의 놀이 동산 관람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희망했고, 행사에 앞서 JCE인들은 아동들의 장애 상태와 개개인의 특성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들이 전 장애아동 도우미 역할 교육을 몸에 익혔다. 놀이기구 탑승과 동물원 관람, 봄꽃 축제 등을 즐기고 자체적으로 준비한 페이스 페인팅과 풍선 인형 이벤트 등 더욱 풍성한 행사로 함께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JCE인들은 '2008 JCE 사랑 나누기'라는 제목하에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소속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100여 명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아이들과 JCE인들이 손을 맞잡고 동물원과 돌고래 쇼를 관람하는 또한 광장을 빌려 재활치료에 도움이 되는 악기, 에어볼, 터널 기구 등 도구들을 이용한 놀이를 함께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해당 놀이 도구들은 복지관에 기증을 해 이후에도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JCE의 아름다운 동행은 후원금 기부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직원들이 장애 아동들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참 의미를 체험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행사였다.

한편, JCE는 올 초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군을 방



문해 기름제거를 위한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프리스타일 게이머와 JCE 임직원 등 100여 명이 함께한 봉사 활동은 직원들이 태안을 돕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게이머들의 참여로 활성화 되었다. JCE측에서는 재해 복구 지역과 다음 봉사자들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직접 가져온 현 옷과 작업에 사용되었던 방재복, 장화를 현장에 기부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JCE는 장애인과 소외 계층,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이 업계에 좋은 본보기가 되어 게임 기업들의 사회 환원 활동에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

JCE는 온라인게임전문기업이다. 1998년 국내 최초 SF MMOG인 'warbible'을 선보인 이래,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Redmoon', 리얼라이프 시뮬레이션게임 'JoyCity', 3D 액션 MMORPG 'Rush Online', 온라인 스포츠게임 'FreeStyle' 등 새로운 장르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